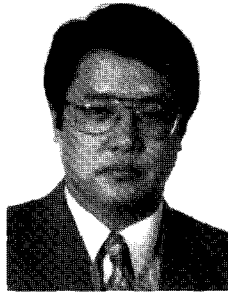


세계의 당뇨병주간



유형준

한강성심병원 내과 전문의

올 해는 세계당뇨병연맹(IDF,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과 세계보건기구(WHO)가 '당뇨병의 날(World Diabetes Day)'을 제정한지 8년째 되는 해이다. 지구상에 약 1억 3천 5백만명 이상의 당뇨병환자가 있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 2025년에는 3억의 인구가 당뇨병을 가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IDF와 WHO는 인슐린을 발견한 캐나다 반팅 박사의 생일을 기념하여 11월 14일을 당뇨병의 날로 정하고, 11월 14일이 들어있는 주간을 '당뇨병주간'으로 선정하여 당뇨병의 조기 발견, 당뇨병에 관한 교육, 당뇨병에 대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1주일 동안 한국당뇨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당뇨병 공개 강좌를 비롯하여 전국적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활발

한 준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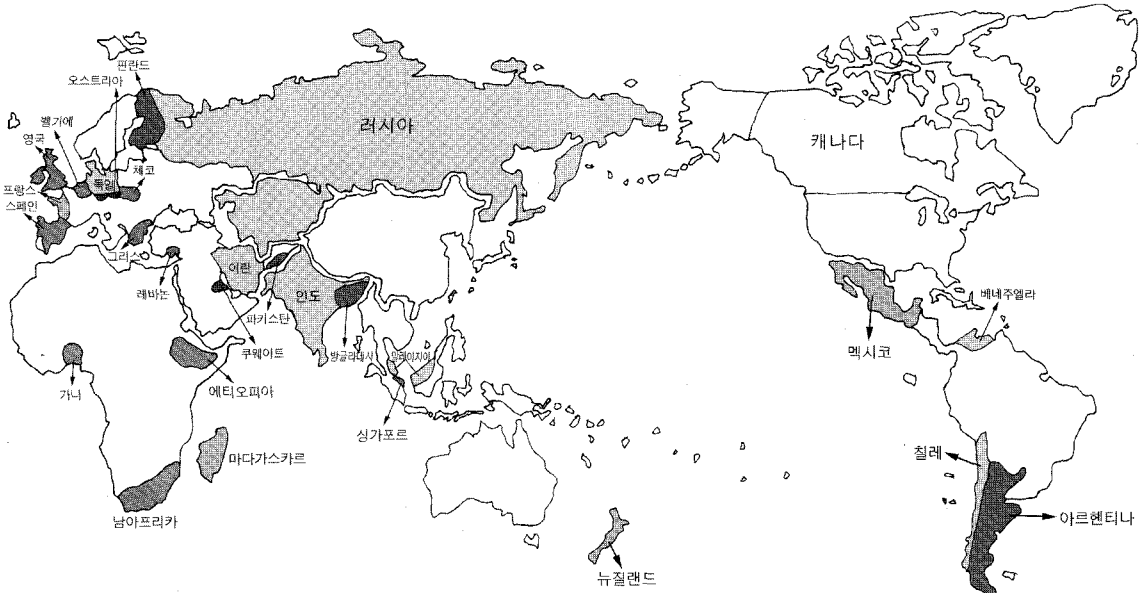
올해 세계 당뇨병의 날과 당뇨병주간을 맞아 세계 여러 곳에서 1997년 작년에 펼쳤던 행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당뇨병 관련 분야의 형편을 자리매김 해 보고 더 나은 당뇨병주간 행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 100단위 인슐린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언론인들도 참석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모든 언론 매체에 100단위 인슐린의 장점과 인슐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소개하였다.

가나 :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해당하는 보건장관이 국립당뇨자문기구와 청소년 당뇨그룹을 발족 시켰다. 이 두 기구는 당뇨병

세계 당뇨병의 날 & 당뇨병주간



검진 실시와 당뇨병 교육 홍보를 국가적 건강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주력한다.

마다가스카르 : 보건부와 WHO의 후원 아래 당뇨 관련 전시 행사를 하였다. 당뇨병주간 3주전부터 플래카드, 스틱커, 포스터 및 소책자를 이용하여 당뇨병과 행사에 대하여 홍보하여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행사에 참여케 하였다.

남아프리카 : 협회의 주도하에 총 380만명의 당뇨인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당뇨병연맹에서 발행한 포스터와 책자들을 5개국어로 번역하여 병의원, 도서관, 보건관련 기관에 배포하였다. 강연, 무료 혈당 측정, 당뇨 인형극 및 거리 행사도 실시하였다.

중근동지역

이란 : IDF 포스터를 번역하여 1만장을 병

의원, 대학, 약국에 배포하였다. 보건부 담당 자들과의 회합을 가져 당뇨병의 국가적 사업 수행에 관한 토의도 가졌다.

쿠웨이트 : 비디오를 제작하여 곳곳에서 상영하였다. 당뇨병의 날에는 750여명이 참석하여 전시, 혈당 측정, 세미나 및 당뇨 교육 강연을 가졌다. 특히 제 1회 '당뇨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당뇨인의 발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다. 심포지엄 내용은 방송 매체들을 통하여 전국에 전해졌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전문가들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대담 형식으로 충분히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레바논 : 제 1형 당뇨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모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심포지엄은 프랑스의 유명 피아니스트인 알랭 레페브레의 연주로 끝을 맺었다.

파키스탄 : 국회 대변인이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의 당뇨병주간 선포사를 하였고 당뇨병의 다양한 내용이 언론, 방송 매체를 통하여 소개되었다.

유럽

오스트리아 : IDF 발간 책자를 번역하여 각 신문사에 보냈다. 당뇨병학회는 노인 건강 행사와 당뇨병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벨기에 : 전국적 당뇨병 홍보를 하였다. 전국의 슈퍼마켓에 당뇨병 영양사가 직접 현장에서 당뇨병 식사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알려주고 상담을 받았다.

체코공화국 : 전국 및 지역에서 전시, 세미나 및 소책자를 이용한 캠페인을 하였다.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도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특히 당뇨 관리, 인슐린 발달 역사를 다루었고 시청자와의 상담도 하였다.

핀란드 : 학회 주관으로 출판물을 발간 배포하였고 혈당 측정도 하였다.

프랑스 : 이틀에 걸친 당뇨병관리 세미나를 가졌다.

독일 : 강의, 워크샵, 전시, 책자 배포 등을 하였다. 언론을 통한 홍보도 잘 이루어 졌다. 모든 행사에 정부 대표가 참석하였다.

그리스 : 28개 신문에 당뇨병 소식을 실었다. 학회는 정부에 당뇨병 외래 장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노르웨이 : 당뇨인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였다.

러시아 : 모스크바당뇨병학회는 소아 캠프,

언론 홍보, 전시 및 공개 강좌 등의 광범위한 행사를 하였다.

스페인 : 당뇨병 조기 발견 행사를 하였다. 이 행사의 모든 내용이 언론에 '당뇨-무엇인가? 당뇨-어떻게 관리하는가?'의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영국 : '좋은 당뇨 서비스의 핵심'이란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다. 이 책에는 당뇨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의견이 들어 있다. 당뇨의 일차의료에 관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북아메리카

캐나다 : 11월 한달을 당뇨의 달로 정하고 있다. '일수록 좋다'라는 주제 아래 여러 행사를 하였다. 언론을 통한 홍보 교육은 물론 세계 당뇨병의 날인 14일에는 당뇨병 관리를 위한 기부금 모금 행사도 가졌다. 세계 당뇨병의 날 제정 근거가 되는 프레데릭 반팅 박사의 생일인 11월 14일에 박사의 출생지인 온타리오주의 엘리스톤에서는 프레데릭 반팅 교육위원회 주최로 기념 만찬이 열려 박사의 업적고하 세계 당뇨병의 날의 의의를 되새겼다.

멕시코 : 멕시코당뇨병연맹 회원들의 참여와 정부 관련 부처의 지원으로 기념식을 갖고 홍보 사업을 하였다.

아시아

방글라데시 : 당뇨에 대해 무지한 전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송

을 통한 교육을 하였다. '세계 당뇨병의 날' 로고가 들어 간 티-셔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티-셔츠를 입은 채 행진 대회를 가진 후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도 : 2억 1000만명의 사람들에게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당뇨병을 홍보하였다. 전시회를 열었고 특히 당뇨병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 당뇨 스크리닝, 토의, 세미나를 가졌다. 교육 자료들을 제작, 배포하였다.

칠레 : 칠레당뇨병연맹 주최로 전시회를 가졌다. 보건부 장관이 참석한 당뇨병 관리의 우선 순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베네주엘라 : 당뇨와 당뇨 식사 조리에 관한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이 혈당 측정 행사와 함께 방영되었다. 당뇨인들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여 당뇨 관리의 실제에 관하여 좌담을 하였다.

서태평양 지역

뉴질랜드 : 전시, 기념 만찬, 즉석 당뇨병 이벤트가 다양하게 열렸다. 정부에 '당뇨선언'을 청원하는 사인회를 열어 수천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13일 보건부에 제출하였다.

말레이시아 : 전시, 혈당 측정, 당뇨식 요리 강좌 등이 개최되었고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국적 홍보를 도와주었다.

싱가폴 : 당뇨병학회는 250여명이 참여한

공식 당뇨 정보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강연, 상담, 혈당 측정, 안과 및 발 검진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는 IDF의 서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의 행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다른 분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행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전국적으로 혈당 측정, 지방도 측정과 상담이 무료로 당뇨병주간 내내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걷기 대회와 뷔페 식사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정책 수립 관련자도 참여한 당뇨병 세미나를 갖고 있다. 특히 올해엔 지난 6월 22일 개설한 '당뇨 홈페이지'를 당뇨 교육 홍보의 장으로 하여 실제적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당뇨 버스' 출범식을 갖는다. 당뇨 버스는 전국의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가 당뇨와 당뇨에 관련된 여러 검사들을 하고 그 지역의 의사들과 연결시켜 주는 동시에 당뇨 교육 사업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당뇨병주간에 대한 내용을 세계 각국의 행사들을 중심으로 나라별로 알아보았다. 모두가 당뇨병의 올바른 이해와 관리로 좀더 편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1998년 당뇨병주간을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제정한 슬로건을 소개하면서 설명을 맺는다.

"당뇨병과 함께 더 나은 삶을" **DAK**